



Asset Allocation

자산배분의 창(窓)

영국 정치의 전환점, 시장은 무엇보다도 재정을 본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스타머의 퇴진, 영국 정치는 다시 전환점에 섰다

2026년 6월 22일 사임을 발표한 키어 스타머 (Keir Starmer)는 2024년 총선 압승 이후 노동당을 중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재편해왔다. 재정건전성과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며 과거 노동당 좌파 노선과 거리를 두었고, 집권 초기에는 금융시장으로부터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와 생활비 부담, NHS 대기시간 문제, 이민 정책 논란 등이 누적되면서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였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지방선거 참패와 노동당 내부 반발이 겹치며 지도부 교체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치적 입지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특히, 미국 대사로 임명된 Peter Mandelson을 둘러싼 논란과 과거 Jeffrey Epstein 관련 이슈의 재조명 역시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중시켰다. 결국 스타머의 퇴진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정치적 리더십 약화와 당내 통제력 상실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번햄의 부상, 노동당은 얼마나 좌측으로 이동할 것인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앤디 번햄 (Andy Burnham)을 두고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향후 노동당의 정책 방향 변화 여부다. 일부 영국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노동당의 좌클릭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번햄은 스타머보다 노동당 전통 지지층과 노조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지만, 2015~2020년 *제레미 코빈 (Jeremy Corbyn) 체제 노동당이 제시했던 급진적 재분배나 국유화 노선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도표 1 참고]

번햄의 정치적 기반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있으며, 교통·주택·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개선을 강조해 왔다. 다만 스타머 체제보다 공공투자와 지역 개발 정책에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예상되고 있다. 북부 지역 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 주택 공급 확대 등은 번햄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의제들이다. 다행히 대규모 증세나 국유화 보다는 성장을 제고를 위한 선택적 재정 확대를 보일 가능성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시장은 "번햄이 코빈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Reform UK의 부상 속에서 노동당이 전통 지지층을 얼마나 다시 흡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타머 체제보다 어느 정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시장의 시선, 인물보다 재정팀에 집중

흥미로운 점은 스타머 사임 이후에도 gilt (Gilt) 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이 번햄 개인보다 향후 재정정책 운영 방식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① 재정 준칙(Fiscal Rules) 유지 여부, ② 추가 국채 발행 규모, ③ 차기 재무장관 인선이다.

실제 영국 정치에서는 총리보다 재무장관이 시장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은 번햄의 당선 여부보다 그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길 것인지에 더욱 민감하게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인사가 재무장관에 새로 임명된다면 시장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차입 확대와 적극적 재정지출을 선호하는 인사가 기용될 경우 gilt 금리와 파운드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전환점보다 재정에 대한 신뢰

현재 영국 경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정부부채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로 BOE의 긴축 전환 또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정책 여건은 더욱 제약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경기 회복세는 약하고 생산성 개선 역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영국 채권시장은 정치적 성향보다 재정 신뢰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2년 Liz Truss 정부 당시 미니 예산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당시 대규모 감세 정책이 충분한 자원 조달 계획 없이 발표되자 gilt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으며, 영국 연기금 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영란은행이 긴급 개입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시장은 재정준칙을 중시해 온 현 재무장관 Rachel Reeves의 역할을 높게 평가해 왔다. 리브스는 스타머 정부 출범 이후 노동당 내부의 지출 확대 요구와 성장 압박 속에서도 재정규율을 강조하며 시장 신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결국 번햄 체제에서 시장의 관심은 정치적 수사보다 경제팀 구성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스타머 이후의 영국 정치 변화는 새로운 이념 경쟁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은 정치적 구호보다 트러스 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진 재정 신뢰를 유지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도표 1. 영국 주요 정치권의 정책 스펙트럼

구분	Jeremy Corbyn (노동당 대표 2015~2020)	Andy Burnham (현 맨체스터 시장 및 차기 총리 유력 후보)	Starmer (현 총리 (사임발표) 2024~2026)	Reform UK (전 Brexit Party, 2021~)
정치 위치	노동당 좌파	중도좌파	중도	우파 포퓰리즘
재정정책	적극적 재정확대	공공투자 확대	재정준칙 우선	감세·정부 축소
증세	고소득층·기업 증세	일부 수용 가능	제한적	반대
공공서비스	대폭 확대	확대	유지·개선	효율화
국유화	적극 추진	공공성 강화	반대	반대
노조 관계	매우 우호적	우호적	상대적 거리 유지	비우호적
이민 정책	비교적 개방	중도	중도	강경 제한
EU 관계	매우 우호적	우호적	실용적 협력	강경 거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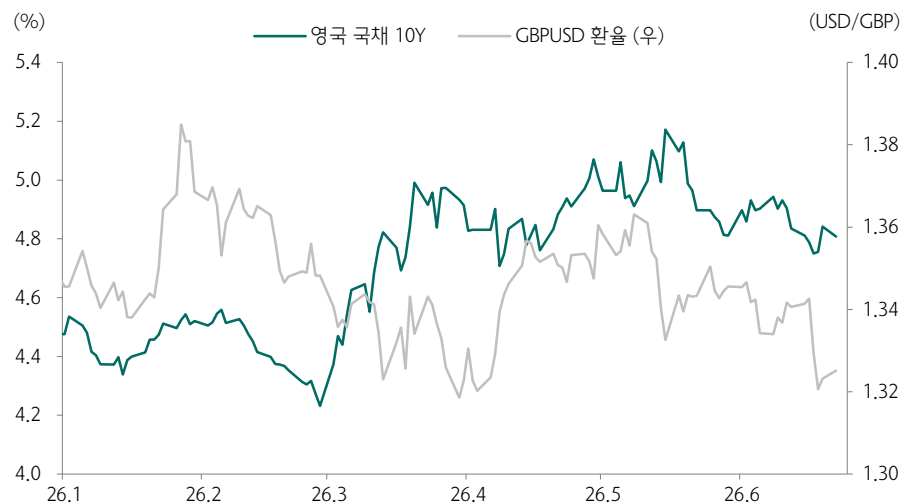
자료: 언론취합, 하나증권

도표 2. 연초부터 이어진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파운드/달러 환율 추이

** 연초부터 영국은 정치적 혼선과 함께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물가 부담 이슈를 동시에 당면해 옴

** 오히려, 5~6월 스타머 총리 사임 발표 직전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왔으나, 사임 발표 직후, 금리와 환율 변동은 제한적

** 시장은 이를 "관리된 권력 이양 (Managed transition)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